

의료 정보보호 정책 부처 합동 세미나 개최

의료 분야 정보보호 표준화 등 범부처 정책 협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6일 서울 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내 대학병원의 의료정보가 해외서버로 유출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관련 부처 협력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향후 U헬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정보의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제표준 적용이 늦어질 경우 국내 의료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료 정보 관련 부처 정책수립, 기업의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반드시 국제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율리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범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서비스 유형별 세부요소 기술 등을 체계화한 스마트의료정보 표준화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SMS)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등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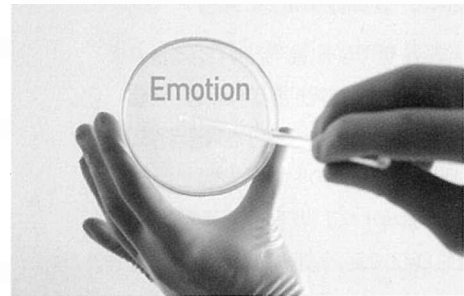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보침해 형태가 과거 개인적 과사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의 사이버테러로 공격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면서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을 방송·통신·금융·의료·에너지 등으로 확대할 것이며, 취약점 진단과 보호장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대해 기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에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주체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료기관 유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 사례 등이 발표됨으로써,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의 사례를 접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개인 진료기록, 병력 등 의료정보 유출 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편이었다. 산업부, 미래부, 복지부는 이번 정책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의료정보 분야 R&D 및 표준화 등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감성 기술, 표준으로 재탄생! 감성표준화 심포지엄 개최



기술표준원은 인간의 감성을 제품 생산에 반영하는 감성공학 표준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9월 13일 '감성표준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감성공학은 인간의 오감을 비롯한 감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제품설계로 실현해내는 기술로 감성디자인, 감성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감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정 이미지 등을 활용해 광고를 만드는 등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 감성표준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현황 등을 소개하기 위해 연세대 삼성관에서 상명대학교 황민철 교수와 일본의 감성공학회 Szuka 회장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감성과학 연구 어디까지 왔나?', '일본 감성공학 성공사례 및 표준화' 등의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의료기기, 사무용품, 가전제품 등에서 손잡이 감촉, 문이 여닫히는 편안함 등 사람의 오감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 개발이 시도 중이다. 또한 산업 전반에 감성을 반영하려는 사회적 요구 및 감성공학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실험적 지표나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성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표준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술표준원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감성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감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중장기 전략과 표준화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감성데이터에 대한 측정방법 등 객관적 지표를 구축할 예정이다.

흥미진진 경제다반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물·역사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 전자책(흥미진진 경제다반사)을 발간했다.

이 전자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

인 '경제다반사'에 게재된 6,500여 건의 콘텐츠 가운데 30건을 엄선해 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 알기, 명자에게 묻다, 흥미진진 생활 속 신기술 이야기, 우리 역사 다시 보기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T스토어, 영풍문고, 리디북스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태블릿PC, 스마트폰, 일반 PC 등으로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의 콘텐츠를 발굴해 전자책으로 제작,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초보 및 유망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주관한 수출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발대식 행사에 참석하여 174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은 기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업 육성사업인 TCC(Trade Champs Club)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수출초보기업 단계(TBC), 수출유망기업 단계(TSC)를 추가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상기업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통해 서류·현장방문심사,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균 5대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17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성장 단계별로 보험료 할인, 선적전 신용보증 등 다양한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 받으며, KOTRA·무역협회·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KATS news 10월의 기술표준원 이슈

신기술은 우리의 힘! NEP·GR 인증서 수여

신기술제품(NEP) 20개, 우수재활용제품(GR) 16개 인증

기술표준원은 9월 11일 소강당에서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제품(NEP) 20개와 자원의 절약에 기여할 우수 재활용제품(GR) 16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신제품(NEP) 인증은 국내 최초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하여 NEP 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국내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친환경 우수재활용제품의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NEP 인증과 GR 인증은 1차(서류면접), 2차(공장심사 및 제품평가), 3차(종합심사)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 NEP 및 GR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NEP 인증서를 받은 우리정도(대표 장태순)가 개발한 '고속 레이저프린터·복사기의 화상정착기용 박막 금속관(Metal Sleeve)'은 대형복사기, 컬러프린터 등 고급 기종에 적용되는 핵심부품이다. 종전의 기계가공방식으로 만든 관에 비해 두께가 얇아 작은 에너지로도 짧은 시간에 가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정기술이 간단한 전기도금법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부품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세계 프린터 부품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송진산업대표 정호진이 개발하여 NEP 인증을 받은 '전선배관용 내압 방폭 무용접 플렉시블 조인트'는 정유·화학 플랜트 등 폭발위험이 큰 장소에서 전기적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작업자가 남으로 용접하여 접합하는 기존의 방식을 무용접 전용설비에 의한 기계적 결합방식으로 개선하여 높은 친환경성은 물론 안전성, 내구성이 탁월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기술은 기계적 결합구조의 무용접 방폭용 플렉시블 전선관 분야에서는 세계최초의 기술이며, 향후 방폭용 배관제품의 세계시장으로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GR 인증받은 제품 중 케이플리텍이 개발한 '재활용 복합체'는 국내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주택의 외부 조경용 데크 및 베란다 등에 사용되는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제품이다. 내마모성 및 강도 등의 품질이 우수하며, 태우거나 매립하는 목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원목벌채를 예방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과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제품 인증과 기술개발 촉진의 선순환 인증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